

2023. 12. 8.(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희	2133-5530
온라인판로지원팀장	박지선	2133-5141
관련 누리집	www.seoul.g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올해 마지막 세일”...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최대 20% 할인 슈퍼서울위크 개최

- 12.11.(월)~25.(월), 우체국쇼핑 등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몰 5곳서 진행
- 소비자는 우수제품 할인 구매, 소상공인은 실질적 매출 증대... 연말 따뜻한 상생의 장
- 올해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 1,100개사 선정해 온라인진출부터 패키지개선까지 밀착지원
- 내년에는 홍보·마케팅, MD상담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늘릴 계획...내년 4월 모집

연말을 맞아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몰 5곳에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날 볼 수 있는 ‘슈퍼서울위크’가 진행된다. 소비가 늘어나는 연말에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은 내리고 대목을 맞은 소상공인 매출은 올려주는 따뜻한 상생의 장이다.

서울시는 12월 11일(월)~25일(월)까지 ▲11번가 ▲우체국쇼핑 ▲G마켓 ▲옥션 ▲롯데온 5곳의 온라인쇼핑플랫폼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슈퍼서울위크 - 연말감사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전은 ‘여름휴가특별전(7월)’, ‘한가위특별전(9월)’에 이은 올해 마지막 행사로, 춥고 건조한 겨울을 나기 위한 수분 마스크팩, 헤어팩에서부터 겨울밤을 맛있게 채워줄 떡볶이 밀키트까지 약 1만 3천여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 ‘여름휴가특별전’에는 12,253개사, ‘한가위특별전’에는 13,095개사가 참여했으며, 총 8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별전 기간에 투입한 쿠폰 발행비용 대비 42배의 매출 성과를 달성한 것. 서울시는 기획전 매출만큼 참여 소상공인에게 매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참고: 우수사례

(매출액 상위) 유아용 기저귀를 파는 ‘더자람’은 지난 기획전에 참여하여 기간 내 약 2.4억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매출액 증대) 약과 등 추억의 과자를 판매하는 ‘라이프컬처’는 기획전 기간 동안 평균 1,000%를 상회하는 매출 성장을 보였다.

□ 소상공인 제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중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슈퍼서울위크’를 입력하면 각 쇼핑플랫폼으로 이동 가능하다.

<올해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 1,100개사 선정해 온라인진출부터 패키지 개선까지 밀착지원>

□ 이 외에도 서울시는 소상공인 제품의 품질과 상품성으로 높이고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올해 잠재력있는 소상공인 1,100개사를 선정해 밀착지원을 펼쳤다.

○ 지원항목은 ①라이브커머스 방송 ②클라우드 펀딩 지원부터 ③전문가

방문형 코칭 ④온라인 소비자 조사평가 ⑤상품디자인 개선 ⑥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⑦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 다양하며, 분야별 맞춤형 지원 외에도 온라인교육, MD상담회 등은 상시적으로 진행했다.

□ 실제로 서울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제품·디자인 컨설팅 후 소비자 호응이 높아졌다는 반응부터 해외 수출국 확장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례를 엮은 책자를 발행하고 내년 초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참고: 우수사례

(신제품 개발) 채식주의자용 비건소스 제조사인 ‘버틀’은 서울시로부터 비건은 물론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메뉴 컨설팅을 받고 신메뉴 개발, 크라우드펀딩 1,076%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코리아비건페어 참여도 지원받아 고객층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해외 진출) 친환경비건화장품 브랜드 ‘아이노헤아’는 해외진출 집중 컨설팅을 통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진출 후 해외소비자 공략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추가로 받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바이어와 수출협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홍보·마케팅, MD상담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늘릴 계획…내년 4월 모집>

□ 한편 서울시는 내년에도 약1,000여개사를 선발해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에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홍보·마케팅과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호응이 높았던 MD상

담회 참여기업은 확대하여 진행한다.

○ 지원대상기업은 내년 4월 모집 예정이다.

□ 최선힬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연말을 맞아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할인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이 품질좋은 소상공인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소상공인들도 실질적인 매출증대로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공적 시장 진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2023년 슈퍼서울위크_연말감사특별전 포스터 1부.

